

보 도 자 료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17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2017. 7.

1. 개요

- **선정 배경:** 현대경제연구원은 매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제·경영 분야의 트렌드와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를 감안해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를 선정해오고 있음
 - 2017년 CEO 필독서로 경제·경영 6권과 인문·사회 4권, 여기에 문학 1권을 더해 모두 11권 선정
 - 금년에 선정된 도서는 특히 4차산업 혁명 등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는 변화 흐름에 대응해 ‘미래 변혁’, ‘혁신 기회’, ‘성찰’을 강조하고 있는 게 특징
- **선정 기준:** 2016년 7월 ~ 2017년 6월 출간된 경제·경영 및 인문·사회 도서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
 -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도서
 -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경제 및 경영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 CEO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고 성찰하는 데에 유용한 도서
- **선정 방법:** 주요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조사, 출판사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원 내부 구성원의 평가를 모두 종합해 최종 추천도서를 선정

< 2017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

분야	No	도서	저자 / 역자	출판사	출간월
경제 경영 (6選)	1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클라우드 슈밤 외 26인/ 김진희 외 2인	흐름출판	2016.07
	2	미래의 속도	리처드 돕스 외 2인 / 고영태	청림출판	2016.11
	3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 장진원	한국경제신문	2016.09
	4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필립 코틀러 외 2인 / 이진원	더퀘스트	2017.02
	5	블록체인 혁명	돈탭스콘, 알렉스탭스콧 / 박지훈	을유문화사	2017.01
	6	그릿(Grit)	앤절라 더크워스 / 김미정	비즈니스북스	2016.10
인문 사회 (4選)	7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 박세연	21세기북스	2017.04
	8	호모 테우스	유발 하라리 / 김명주	김영사	2017.05
	9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 전미영	부키	2017.02
	10	단어의 사생활	제임스 W. 페니베이커 / 김아영	사이	2016.12
문학 (1選)	+1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더숲	201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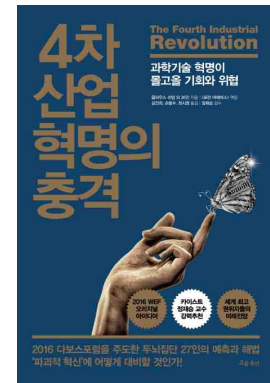
*무순

2. 추천 도서 10+1選 소개*

○ 경제·경영 분야 (6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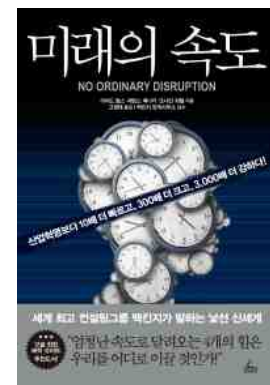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클라우스 슈밥 외 26인 공저 / 김진희 외 2인 역 2016.07 / 흐름출판
----------------	---

세계 최고의 전문가 27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에 대해 《포린 어페어스》와 《포린어페어스닷컴》에 기고한 기사를 엮은 것이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디지털혁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첨단 기술의 현황과 당면과제, 기회와 위협, 전망과 해법 등을 심도 있게 들려준다.



『미래의 속도』	리처드 돕스 외 2인 / 고영태 역 2016.11 / 청림출판
----------	---------------------------------------

세계 경제는 지금 역사적, 기술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 오늘날은 도시화와 소비, 기술과 경쟁, 고령화와 노동력처럼 모든 변화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각 요소를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변화는 예상하기 더 어렵고, 그 영향력도 더 막강해지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 그룹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경제연구조직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25년간 세계 경제를 추적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게 되었다.



* 추천 도서별 소개 내용은 서점 및 출판사의 도서 소개, 서평을 참조해서 작성

『데이비드 버커스 경영의 이동』	데이비드 버커스 저 / 장진원 역 2016.09 / 한국경제신문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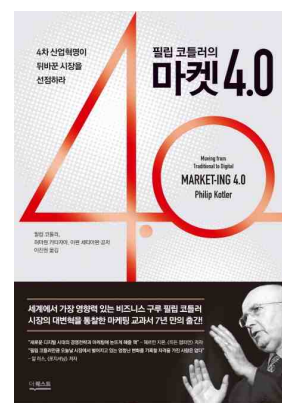
경영학 교수로서 차세대 경영사상가로 존경과 주목을 받고 있는 저자는 『경영의 이동』을 통해 기존의 통상적인 기업 운영 원칙들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그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통적 경영 방식의 상당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저자는 “제거하세요”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으로 이동하려고 운영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필립 코틀러 외 2인 / 이진원 역 2017.02 / 더퀘스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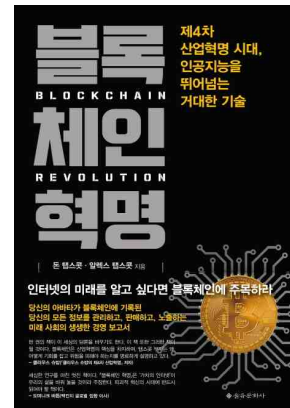
자동화, 기계화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한 변화를 몰고 왔고, 이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연히 비즈니스도, 마케팅도 새롭게 전략을 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세계적인 경영 구루, 특히 마케팅의 대가로 통하는 필립 코틀러는 생애 마지막이 될 이번 책 『마켓 4.0』에서 4차 산업혁명과 케를 같이 하는 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기업의 생존 전략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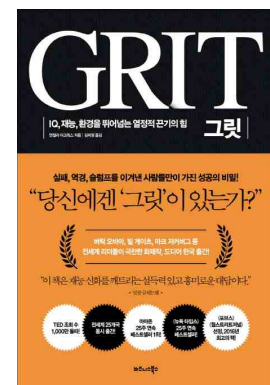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공저 / 박지훈 역 2017.01 / 을유문화사
-----------	--

1세대 디지털 혁명으로 이룬 ‘정보의 바다’를, ‘가치의 바다’로 만드는 2세대 혁명적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질서 자체를 바꾸는 제 2의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하다.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 은행 가운데 80퍼센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를 차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래 신기술이다.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하려는 경영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술이다.



『그릿(Grit)』	앤젤라 더크워스 저 / 김미정 역 2016.10 / 비즈니스북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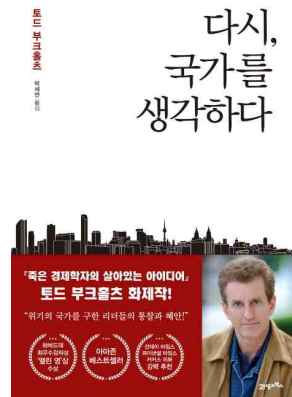
‘그릿’(grit)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이며,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개념을 심리학 연구계에 처음 소개한 연구자로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능이나 IQ, 부모의 경제력 같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닌 불굴의 의지, 즉 ‘그릿’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 인문·사회 분야 (4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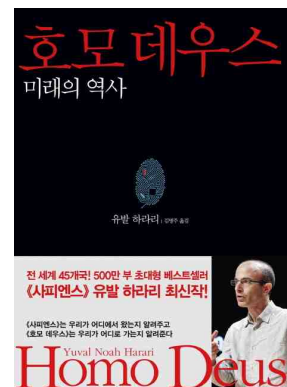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토드 부크홀츠 저 / 박세연 역 2017.04 / 21세기북스
----------------	---------------------------------------

이 책은 오늘날 부유한 나라들이 직면하는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분열 양상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거대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경제적 번영 이후, 국가가 쇠락하는 다섯 가지의 잠재적이고 역설적인 요인을 정의한다. 그 다섯 가지는 바로 출산율 저하, 국제 교역의 확대, 부채 상승, 근로 윤리 약화, 애국심의 소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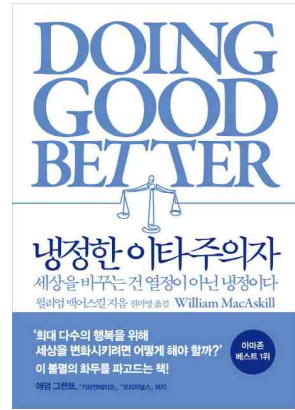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저 / 김명주 역 2017.05 / 김영사
----------	-----------------------------------

호모데우스 (HOMO DEUS)의 ‘호모’ (HOMO)는 ‘사람 속을 뜻하는 학명’이며 ‘데우스’ (DEUS)는 ‘신’ (GOD)이라는 뜻이다. 즉, ‘신이 된 인간’이라 번역할 수 있다. 우리는 인류를 괴롭히던 기아, 역병, 전쟁을 진압하고 신의 영역이라 여겨지던 ‘불멸, 행복, 신성’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라고 할 것인지, 어디까지 타협하고 나아갈 것인지’ 종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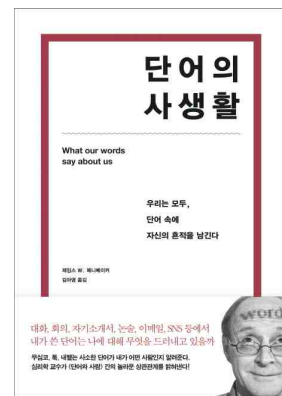
『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저 / 전미영 역 2017.02 / 부키
-------------	------------------------------------

선 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펌프스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폐업했다. 공정 무역 제품 구매도, 노동착취 제품 불매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소용이 없다는 수치가 넘쳐난다. ‘이타주의’는 희생을 뜻하지 않는다. ‘타인의 삶을 개선시킨다’는 단순한 의미를 나타낸다.



『단어의 사생활』	제임스 W. 페니베이커 저 / 김아영 역 2016.12 / 사이
-----------	--

현재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연설과 기자회견은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이메일, 블로그, 인터넷 게시물, SNS, 자기소개글, 대입 논술, 다양한 문학작품과 영화 등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해 단어와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의 심리적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CEO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로 조직 구성원, 주주, 고객, 사회 등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경영자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다.



○ 문학 (1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저 2017.02 / 더숲
----------------------	-----------------------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궁극적인 물음에 51편의 산문이 답하고 있다. 시와 명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저자는 이 책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발견한 삶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곧 우리의 삶이 되리라는 명 산문들이 불확실성의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전한다.

